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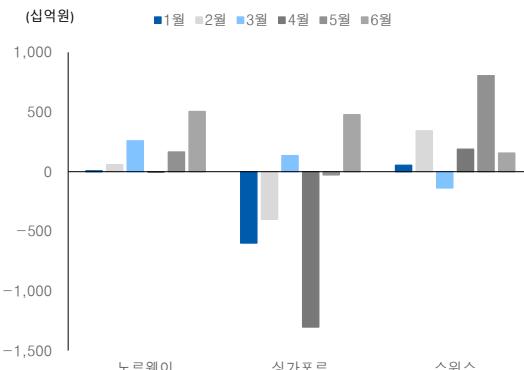
2022.7.14

## 장기투자 외국인은 국내주식 매수

### 1. 연초 이후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국내주식 매수

- 외국인은 6개월 연속 국내주식을 순매도하면서, 19.9조원 국내주식 순매도. 상반기에 영국은 9.6조원, 룩셈부르크 3.2조원, 네덜란드 1.8조원, 홍콩 1.4조원의 국내주식 순매도
-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은 연초부터 꾸준히 국내주식 순매수.
- 국부펀드, 연기금 등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국내주식 저가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임.

연초 이후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국내주식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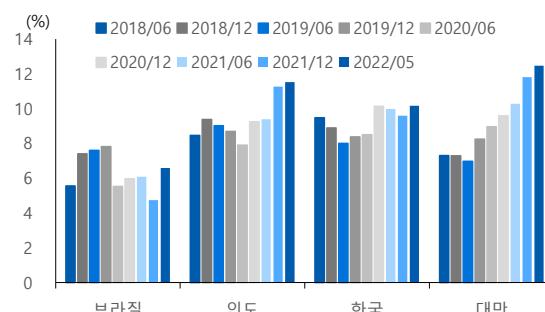


자료: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 2.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신흥국주식펀드와 미국계 자금

- 2021년 신흥국 주식펀드로는 자금 유입되었으나, 미국계 자금은 펀드 내 한국 비중 감소로 국내주식 순매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국계 자금이 국내주식을 순매수하였는데, 이 때 신흥국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 증가.
- 6월에도 신흥국 주식펀드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미국계 자금의 순매도 규모는 크지 않음. 신흥국주식 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신흥국 펀드 내에서 한국 비중은 연초 이후 증가



자료: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 1. 연초 이후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국내주식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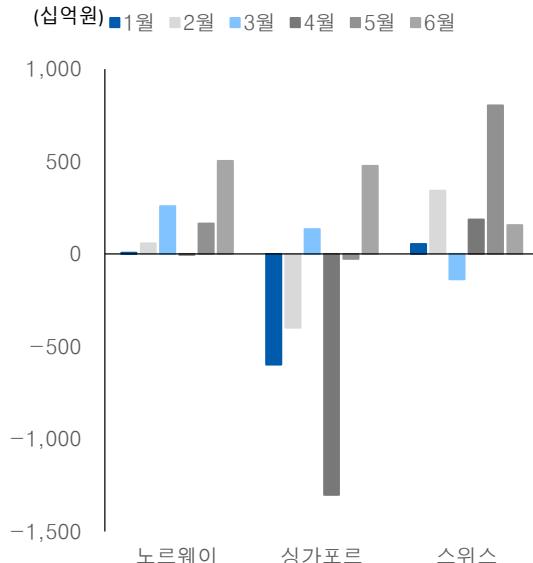
인플레이션, 빅스텝, 달러 강세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국내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5월 1.6조원, 6월 3.9조원 등 상반기 6개월 연속하여 19.9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하였다.

상반기에 영국은 9.6조원, 룩셈부르크 3.2조원, 네덜란드 1.8조원, 홍콩 1.4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하였다. 전통적으로 영국과 룩셈부르크, 홍콩 등은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 등의 비중이 높아서 환율 등 매크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은 연초부터 꾸준히 국내주식의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6월 4770억원의 국내주식을 순매수하였다. 이외에 캐나다와 스웨덴 등도 6월 국내주식 순매수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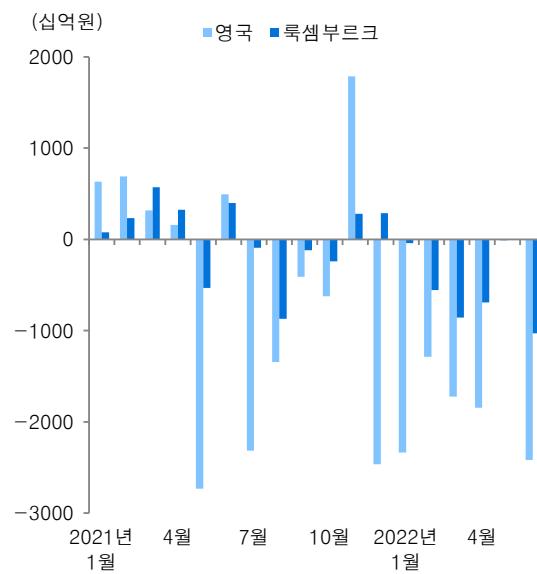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가 있으며, 스위스는 거액자산가의 자산을 맡은 Wealth Management가 발전한 국가이다. 캐나다와 스웨덴은 연기금의 영향력이 크다. 6월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기관투자자들이 가격 메리트가 생긴 국내주식의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차트1]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연초 이후 국내주식 매수



자료: 금감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환율 등 매크로 변화에 민감한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은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주식 순매도 기조



자료: 금감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2.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신흥국주식펀드와 미국계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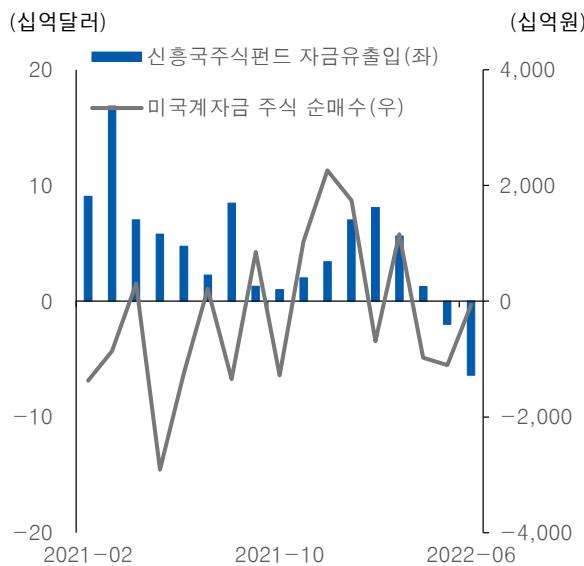
미국계 자금에는 뮤추얼펀드의 영향력이 커서,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의 움직임과 미국계 자금의 국내주식 순매수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신흥국 주식펀드 플로우와 미국계 자금이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2021년 신흥국 주식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있었으나, 미국계 자금은 국내주식을 순매도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이 줄어들고, 대만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미국계 자금이 국내주식을 순매수하였는데, 이 때 신흥국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이 늘어났었다. 6월 신흥국주식펀드와 ETF에서는 60억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미국계 자금은 국내주식을 600억 정도만 순매도하였다. 6월에 신흥국펀드들이 한국 비중을 늘린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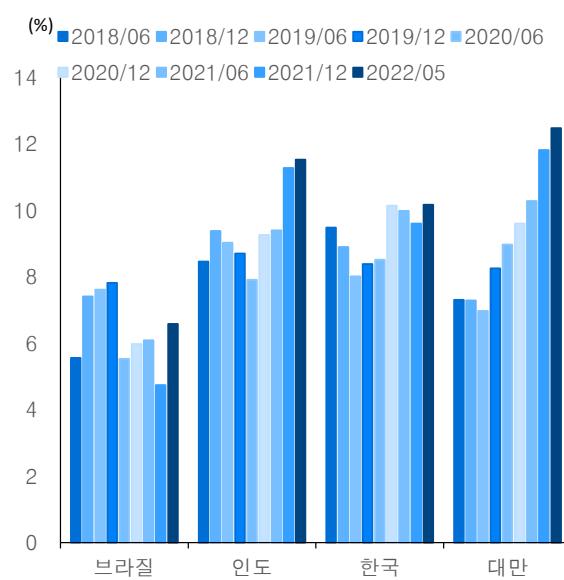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외국인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 주식의 저가 매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악재를 반영해온 국내주식시장의 가격 메리트가 외국인들에게 모멘텀 투자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차트3] 6월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자금 빠져도, 미국계 자금은 주식 순매도는 크지 않음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신흥국 펀드 내에서 한국 비중은 연초 이후 증가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